

특별전 감상 가이드

사이초 스님과 일본 천태종



승려 사이초(767-822)

<덴교 대사(사이초) 초상>

무로마치시대, 15세기, 시가 엔라쿠지 절 소장

불교의 한 종파인 '천태종'은 중국에서 생겨났다면. 일본에서 천태종의 가르침을 널리 퍼뜨린 사이초 스님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교토국립박물관 공식 마스코트 토라린과 함께 살펴보자!



사이초 입적 1200주기 기념 특별전 <사이초와 천태종의 모든 것>

기간: 2022년 4월 12일-5월 22일 장소: 교토국립박물관 헤이세이 지신관

편집: 교토국립박물관 교육실 번역: 교토국립박물관 기획실 발행: 2022년 4월 12일

연표로 자세하게!

승려 사이초, 어떤 인물인가요?

나라시대 (710-794)

767년 오미 지역(지금의 시가현 오쓰시) 출생. 어린 시절부터 우수했음

780년 13세에 출가함

785년 20세에 어엿한 자격을 지닌 승려가 됨

그러나 삼 개월 만에 히에이 산에 틀어박혀 산속 수행을 시작함

많은 이들의 구제를 돕는
자신이 되기까지
하산하지 않기로
다짐했소.



대단하다린...!

788년 히에이 산에 최초로 불당을 창건함

스스로 조각한 약사부처 불상을 안치하고, <꺼지지 않는 등불>의 불을 밝힘

나라시대에 일본에 들어온 중국 천태종 경전을 접함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음

804년 간무 천황의 권유로 중국(당나라) 유학을 떠남

중국 천태산 등 천태종의 본고장에서 공부함

805년 일본으로 귀국함

806년 천태종이 일본의 정식 불교 종파로 인정되어 전국으로 퍼짐

815년 기존 승려와 다른 천태종 승려다운 기준을 정하고

정식으로 인정받으려 계획함

다른 종파의 반발을 샀으나, 새 시대의 승려에게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득함

혁신적이다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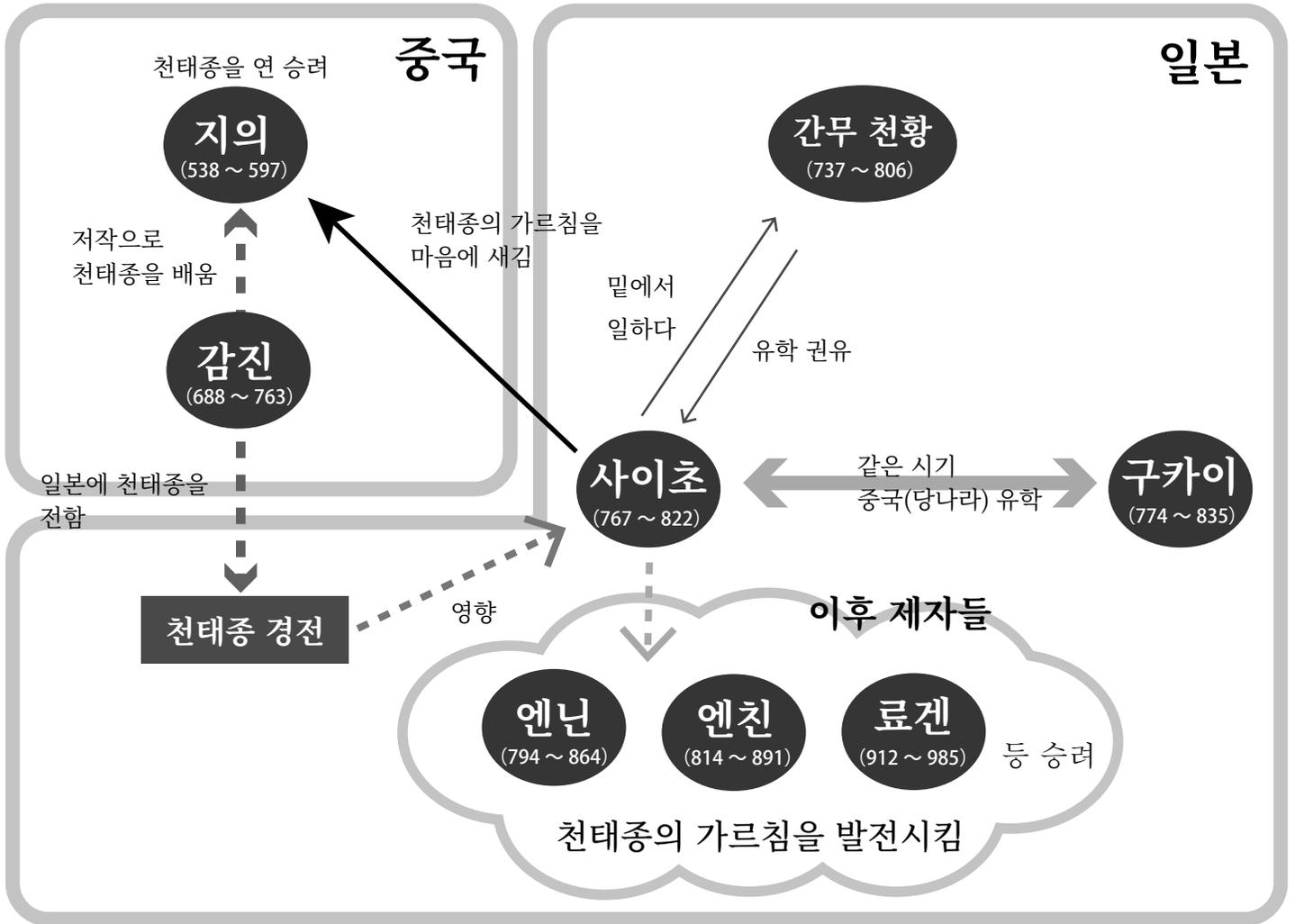
822년 사가 천황이 히에이 산의 새로운 승려 자격 인정 제도를 승인함

다음 날 사이초 사망함

사이초가 연 엔랴쿠지 절은 이후 훌륭한 승려를 다수 배출하였고,
많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그들이 펼친 다양한 가르침은 일본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헤이안시대 (794-1185)

승려 사이초와 주변 인물



중요문화재 <감색 종이에 은 글씨 『법화경』 5권> 첫머리
헤이안시대, 10세기, 시가 엔라쿠지 절 소장 (5권 부분: 4월 12일-5월 1일 전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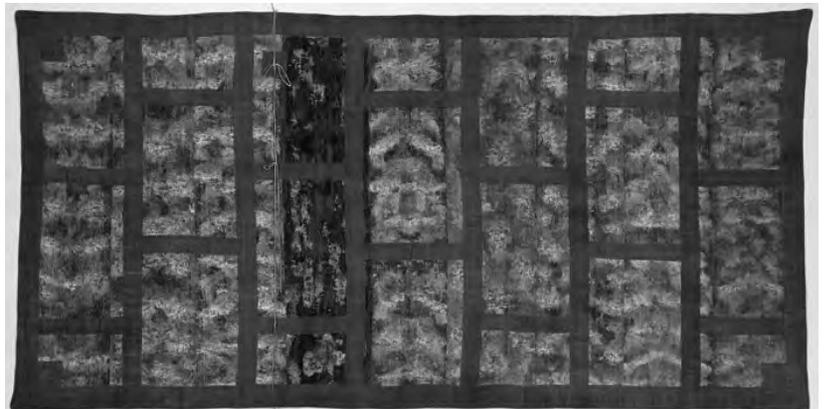
『법화경』은 천태종에서 가장 중시하는 경전입니다.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신앙을 모아, 헤이안시대부터 많이 필사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색 종이에 은으로 법화경을 필사한 두루마리입니다. 가장 처음에 있는 그림은 경전의 내용을 표현했습니다. 사이초의 제자인 엔닌이 그렸다고 해서 오래전부터 유명했으며 귀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스승에게 받은 승려복, 가사

사이초의 중국 유학 시절, 중국 천태산의 불룡사에서 스승인 행만 스님에게 받았다고 하는 가사(袈裟)입니다.

승려의 의복인 가사는 원래 누더기를 모아서 기워 만든 것을 가장 훌륭하다고 쳤습니다. 이 가사도 옷 조각이나 작은 천을 모아 기워서 만들었습니다.



국보 <칠조 자수 가사>
중국 당시대, 8세기, 시가 엔라쿠지 절 소장 (4월 12일-5월 1일 전시)

사이초와 인연 깊은 약사부처

엔라쿠지 절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 중당에는 사이초가 스스로 조각한 약사부처를 모셔왔습니다. 이 약사부처상은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었고, 이 모습을 따라 한 조각상이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겐지 절의 약사부처도 그중 하나입니다. 머리 위 솟은 부분이 완만한 점, 이마가 좁은 점, 옷주름을 Y자 모양으로 파낸 점 등의 특징은 사이초가 만든 조각상의 당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이초 스님의 조각상의 몸은
금색 옷은 붉은색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 조각상은 모두
금색이다란!



중요문화재 <약사부처 입상> 헤이안시대, 10세기, 교토 조겐지 절 소장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가르침

<근본 중당>은 엔라쿠지 절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불당입니다. 승려 사이초가 처음으로 만든 작은 암자로 시작해서 시대를 거듭하여 정비되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오다 나가노부의 토벌로 불탄 후, 도쿠가와와 막부의 지원을 받아 1642년에 다시 세웠습니다.

가운데에는 사이초와 관련한 약사부처(비불 [秘佛] 본존)가 있고, 또한 사이초가 등불을 밝힌 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습니다.

본존과 등불이 참불자의 눈높이에 맞게 배치된 특이한 구조는 '누구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표현합니다.



국보 히에이 산 엔라쿠지 절 <근본 중당> 안쪽 구역(内陣)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히는 매다는 등롱

이 등불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이 세상을 밝혀 나가듯, 부처의
가르침도 계속 지켜지기를 바라오.



1F-2 전시실에 불당 안
모습을 재현했다란!

이 매다는 등롱은
실제로 사용했다고
한다란!

